

CONTENTS

우리법면시리즈	1
현장가이드	2 3
품종갤러리	4 5
리터스츠이스	6
우리꽃명품-5	7
테마시리즈-4	8 ~ 11

한국을 대표하는 혼합종, 우리법면시리즈 새로운 꿈으로 태어났다!



특집	12
광고	13



월드드리프트	14
심지타나리스트	15



우리꽃머리집기	16
---------	----

우리법면 시리즈는 2002년 한국의 새로운 대면적 녹화의 꿈을 안고 태어났다. 양간디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 안정화를 이루고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 거라던 혼합종 시대를 열었다. 이제 혼합종은 우리의 법면과 자연형 하천 어디에서도 일반화 되었다. 그리고 그 표준을 우리법면시리즈가 제시하고 주도해 왔다.

우리꽃박회수는 국내 최대의 해외 채종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건설한 백두산 부근의 농장과 산성질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우리의 토종종자는 그 원종 자체를 국내의 것으로 재배하거나 혹은 백두산에서 채집된 향토수종이다. 이렇게 생산된 종자로 우리의 자연환경에 알맞도록 우리법면 혼합종 시리즈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우리법면시리즈를 네트로 제조 공급하게 되었다. 특히 이 혼합종의 그 혼합비율은 특허 출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10년을 한결같이 사랑받고 있으며, 교목도 선택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우리법면 3호



우리법면 4호



우리법면 종자네트

우선 우리법면 1호는 우리의 향토종자와 관목을 적용해 산림 복원용으로 적합하다. 우리법면 2호는 생태하천 전용으로 우리의 황토 야생화와 함께 우리의 생태하천에 적용 가능한 개리나무, 꼬리조팝, 비수리, 싸리 등의 관목류와 토양을 빠른 시간에 안정시켜주는 26종의 식물이 혼합된다. 또한 우리법면 3호는 우리의 향토수종인 야생화를 중심으로 하고 일부 이미 우리의 자연환경에 토착화 된 도입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법면 3호는 범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특히 전수공간이 확보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적용하면 토양의 빠른 안정은 물론 화리함을 연출,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혼합종이며 한국의 혼합종시대를 정착시킨 대표종이다. 특히 우리법면 3호는 적용구역의 환경에 알맞게 수뭍음, 일관지용, 건조지용으로 나누어져 공급된다. 화리함의 대표종으로 꼽히는 우리법면 4호는 골프장이나 기타 리조트, 아파트법면 등의 화려함과 생명력 그리고 비관리의 대표적인 혼합종이다. 우리법면 4호는 10년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국토의 대동맥

을 따라 거의 전국에 적용되어 우리국토의 화려한 변신을 주도한 바로 그 혼합종이다.

사실 우리법면 혼합종의 가장 큰 장점은 양간디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다. 양간디는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양간디의 생태계 교란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법면 시리즈는 처음부터 양간디를 거부했다. 우리의 산지는 양간디로 토양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지 않고 다양한 식물들이 긴 강하게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양간디가 적용된 절개지는 물론 자연형 하천에도 양간디의 우점으로 많은 종 다양성이 훼손되어 거의 다양한 우리의 향토종자를 찾기 어렵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강둑과 양지초원에는 계절별로 함박꽃, 이비 패랭이, 구절초, 쪽부생이, 산국, 감국 등이 지천에서 피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양간디에 의한 우점과 일부 향토수종이 간혹 가나니 꽃을 피우는 게 현실이다. 연구와 노력

끝에 혼합 적용된 것이 우리법면의 민들레와 절경이의 혼합이었다.

민들레와 절경이는 길가에서 차바퀴에 깔라도 사람이 밟아

도 잘 죽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법면시리즈에 혼합된 절경이와 민들레는 처음에는 빠르게 토양을 피복하고 절경 뿌리들을 활용 토양 안정화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본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점차 사라져 준다. 이런 현상은 생태적인 안정과 다양성이 가능하게 한 자연의 프로그램이었다. 절경이와 민들레는 양지식물이다. 따라서 초원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양간디는 그와는 반대이다. 처음부터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다른 식물의 설 자리를 없애 버린다. 하지만 완전히 우점을 점하고 난 후 모자이크 상으로 일시에 죽게 되어 토사의 유출과 함께 토양의 유실과 산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때문에 우리법면 혼합종시리즈는 건강한 생태복원은 물론 전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알맞은 상품이 되었고 그 성능을 인정받아 10년을 한결 같이 사랑을 받아왔고 이번에 시리즈별로 이용가능하게 네트로 제조 공급하게 된 것이다.

화훼 이모작!

연중 2회 광활한 꽃밭으로 지역축제의 표본이 된

용인내동마을 경관단지 꽃축제



2009년 용인농업기술센터의 자문요청을 받고 내동마을을 방문하였다. 내동마을은 경기도 중앙, 수도권과 인접한 도농복합도시 용인에 위치한다. 평주산맥의 지역으로 마을이 구릉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앞으로 갯강이 흘러 배산임수의 비옥한 토질로 쌀, 화훼 시설채소 등 농업생산에 유리한 지역이다. 그리고 용인농촌테마파크(구 우리랜드)가 위치한 내동마을은 2005년 우리랜드 조성 시 혼합식재 등 우리꽃이 시공에 참여한 경협이 있어 친숙한 마을이기도 하였다.

현장은 마을주민들이 각각 세네 마지기씩 쌀농사를 짓는 곳으로 구릉중턱으로부터 내려오는 논과 밭이었다. 용인농촌테마파크(구 우리랜드)는 수도권 인접과 경부,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요지로 인근 도시민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지역 특성화 사업의 확대를 위해 120,000㎡ 면적의 주민들의 논과 밭의 임대를 통해 내동마을 경관단지 조성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듯 용인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늦가을 종자를 파종하여 봄에 화려한 꽃밭을 조성, 다시 초여름에 파종하여 가을꽃을 감상하는 연중 2회 지역축제를 계획한 것이다.

우리꽃은 파주 서패리에 잉글랜드양귀비, 안개초, 수레국화, 끈끈이대나물, 영채 등의 파종으로 파주서패리꽃이축제를 성공시킨 경협이 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우선 봄에는 안개초의 하얀꽃을 바탕으로 한 잉글랜드양귀비의 붉은 물결, 가을에는 황화코스모스, 코스모스, 메밀의 은은한 가을꽃을 감상할 수 있는 연중 2회 꽃밭조성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으로 우리꽃은 잉글랜드양귀비와 안개초의 파종 적기인 9~10

월 시공에 들어갔다. 경관단지 조성의 첫해로 파주 서패리와 같이 마을추진위원회가 조성되지 않아 용인농업기술센터의 인력지원과 우리꽃의 기술자문이 함께 이루어졌다. 파주 서패리에서 느꼈듯이 논흙을 반흙으로 토질을 바꾸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배수가 용이한 반흙은 트랙터를 이용한 로터리 작업만으로 먼 정리가 가능했지만 90% 이상 저습한 토질인 내동마을 논흙을 파종하기 좋은 토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운 작업 후 토양의 수분상태를 파악해 로터리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작업관단력과 시간이 함께 필요했다.

9~10월 파종, 다음 해 5월 말~6월 말까지 개화하는 잉글랜드양귀비와 안개초는 파종 직후 잡초관리나 특별한 비배관리가 필요 없지만 4~5월 잡초와 비배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내동마을의 첫 파종, 우리꽃의 경험에 비해 기대에 만족할 수 없었다. 우선 토질의 배수가 불량하였고 논흙의 특성상 양분의 용탈작용이 토질을 척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해 6월 26일 가을꽃을 보기 위해 2차 파종에 들어갔다. 지난번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양분 용탈로 인한 척박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밑거름용 요소 비료를 변 정리 하기 전 전면적에 살포하였다. 그 후 논흙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지별로 구획되어 있는 테두리와 차대가 낮은 방향으로 폭1.2m, 길이 1m로 메인 배수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파종지에 1.2m마다 폭30cm, 고랑을 만들어 배수를 보완하였다. 품목은 케스터말혼합종자, 황화코스모스, 코스모스, 메밀, 해바라기로 파종하였고 풍점초와 비베나 플러그묘를 이용하여 문양을 새겨 넣었다. 봄꽃과 같이

화려한 화색은 아니지만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은은한 분홍색부터 하얀 메밀꽃밭은 그 해의 가을을 충분히 담은반하였다.

2010년 9월, 2011년 봄을 위해 파종준비에 들어갔다. 잉글랜드양귀비, 안개초, 영채, 끈끈이대나물, 수레국화를 혼합하여 전면적에 파종하였다. 3회에 걸친 토질 개량 작업과 지역기후 특성을 파악하여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변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 결과 2011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개하였다. 용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고 용인농촌테마파크에 힘입어 40만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2년여에 걸친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도전한 내동마을 현장은 한해 농사를 위해 땅을 흘리는 농사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현재 제주도 유채꽃축제, 봉평 메밀꽃축제, 고창선운사 꽃무릇축제, 태안 연꽃축제, 서울하늘공원 억새축제, 창원가고과 국화축제 등 국내에서도 이미 축제'명만 내면 떠오르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지역축제가 활성화되었다. 유명한 축제로 각 지역은 관광의 명소가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 일자리창출, 상업지구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이루어 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꽃의 화기 특성상 일 년에 한달 정도 남짓한 축제 기간 이외에 내동마을 경관단지 꽃축제와 같이 화훼 이모작으로 연중 2회의 축제는 없다. 그렇기에 용인내동마을 꽃축제는 연중 2회의 연속되는 새로운 지역 축제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우리꽃

목·요·특·강

지피식물(야생화)을 이용한 새로운 조경식재방법 소개!

[혼성/혼합식재, A리거름-E&P(생태액비)경매 벽화수 및 식생매트 외]

대표강사 / 우리꽃 대표 박 공 영

숙근지피식물(묘종·종자) 생산 및 시공전문회사 우리꽃에서 친환경농업 및 생태조경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피식물을 이용한 조경식재방법을 소개합니다.

시 간 매주 목요일(10월 6일 시작) 14:00~17:00 / 19:00~22:00 (택1)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313호

교재비 30,000원(수강료 포함)

수강접수/문의 031) 712-7001 우리꽃명화수(주)

본 강의는 정현 미팅시 예매없이 폐강되거나 강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랑속근코스모스

Coreopsis verticillata 'Moonbeam'
국화과, ☀



6~10월까지 장기개화. 화색은 은은한 노란색이고 30~40cm까지 자란다. 봄에 얇은 로제트형태로 지면에 붙어 있다가 5월 중순이 지나서야 위로 자라면서 많은 꽃대를 맺는다. 지면에 1차 개화 후 지고 나면 위로부터 3~4마디를 커팅해주어야 2차 개화를 빨리 유도할 수 있다. 도로변, 골프장, 식물원 등에 대면적에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적용 가능하다.

카가

Carex caryophylla
사초과, ☀ ☕



키가 10~15cm 정도의 작은 그라스종으로 난형대로 잎이 퍼져 있는 형태를 이룬다. 잎은 녹색으로 부드러운면에서도 질감이 뛰어나다. 점식나열을 하거나 라인식재시 이용하면 좋고 반음지성의 밝은 속속에 적용해도 좋다. 반식은 봄, 가을로 포기를 분주.

붉은까실조팝

Spiraea japonica 'Gold Mound'
장미과, ☀ ☕



잎의 끝 부분이 진한 붉은색을 띄며 자라는 소관목으로 높이가 30~40cm 정도 자란다. 6~7월에 분홍색 꽃이 피고 아주 척박한 토양에서 뿐만 아니라 웬만한 습기가 있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 잎은 거치가 심하고 붉은색 잎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 심는 것이 좋다. 군식, 라인, 포인트 어디에도 잘 어울린다.

꼬리풀 블루

Veronica 'Sunny Border Blue'
현삼과, ☀ ☕



키가 40~60cm까지 자라는 꼬리풀 품종으로 5월 말부터 6월 까지 1차 개화하고 커팅해주면 2차 개화한다. 꼬리풀은 양지를 좋아하지만 약간의 내음성이 있어 반음지에서도 문제없이 자라며 생육이 강건하여 어디에나 잘 적응한다. 반식은 삼목, 분주로 가능하다.

무늬염주그라스

Antherantherum elatius spp. Bulbosum 'variegatum'
화본과, ☀ ☕



그라스 중 가장 하얀색 잎을 가진 품종으로 깨끗한 흰색 줄무늬로 인해 식물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전부 하얗게 보인다. 줄기뿌리가 염주와 닮았고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 봄과 여름에 특히 좋다. 반면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생육이 극히 불량하거나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철 생육이 좋은 식물과 혼합식재하는 것이 좋다.

억새 파랑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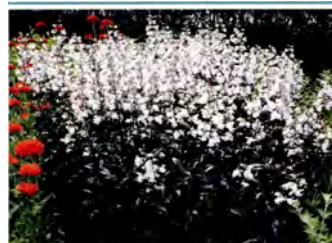
Miscanthus sinensis 'Adagio'
화본과, ☀



이삭의 높이가 100~120cm 정도로 키가 작은 억새 중 하나이다. 잎이 가늘고 피란색을 띄고 있어 고급스럽다. 잎 사이의 간격이 짧고 포기가 조밀하여 풍성한 느낌을 들게 한다. 겨울철 과도한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좋고 너무 일찍 줄기를 자르면 동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봄에 커팅을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펜스테몬 상록홍염

Penstemon digitalis 'Husker Red'
현삼과, ☀ ☕



잎과 줄기가 모두 적색을 띄며 초장이 약 50~60cm 정도 자란다. 5~6월경 중 모양의 작은 하얀색 꽃이 긴 꽃대에 매달려 있는 형상으로 피우고 잎의 색감이 좋고 상록을 유지하므로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 잎의 생육을 돕는 것이 좋다. 화색이 밝고 화려해 혼합식재는 물론 대면적 군식, 그리고 암석가든까지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다.

실은속

Artemisia schmidtiana 'Nana'
국화과, ☀ ☕



잎 표면이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은색을 띄며 구형의 마운드 형태로 자란다. 배수가 잘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좋아한다. 암석가든에 적용하면 고급의 색을 연출하고 혼합식재 또는 라인식물로 활용가치가 높다. 서리에 건디는 힘이 강해 늦게까지 감상 가능하다.

청나래고사리

Matteuccia struthiopteris
면마과, ☀ ☕



습기가 있는 음지에서 잘 자라고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에서는 키가 1m까지도 자란다. 잎과 초형이 고급스러워 건물 음지의 대안식물로 이끼정원 혹은 건물의 음지, 습한 곳에 점식하면 효과적이다. 너무 약하게 기르면 바람에 줄기가 부러질 수 있으므로 튼튼하게 키운다.

눈하늘꽃

Ceratostigma plumbaginoides
갯길결이과, ☀



7월부터 피란색의 작은 꽃이 조밀하게 피어나 10월까지 이어진다. 땅속줄기로 빠르고 넓게 포기를 형성하며 식물 전체적으로 누워 자라는 특성이 있고 꽃이 지고 난 뒤에도 늦가을이 되면 잎이 붉은 단풍이 들어 관상가치를 갖는다. 양지의 건조지, 암석가든용, 중일분리대 또는 넓은 면적의 토양 피복을 요하는 장소에 적용하면 좋다.

가우라 베이비

Gaura lindheimeri 'Baby'
바늘꽃과, ☀



키가 40~60cm로 6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개화하는 꽃으로 군식, 열식, 혼합식재 어디에도 좋아 현장에서 필수적인 품종이다. 고급스럽고 은은한 느낌의 꽃은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간직한다. 일반 가우라보다 초장이 작고 줄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쓰러짐이 거의 없다. 뿌리가 굵고 곧아 배수가 잘되는 시절토에서 생육이 가장 좋지만, 일반 건조한 곳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며 양지는 물론 약간의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알케밀라

Alchemilla mollis
국화과, ☀ ☕ ☕



꽃은 5~6월경 스프레이 형태로 노렇게 핀다. 초장은 20~30cm 정도로 자라며 연두색 원형의 잎이 조밀하게 모여서 자란다. 포기의 모양이 좋아 화단에 단독으로 식재하거나 수변이나 화단의 앞쪽에 열식하면 좋다. 꽃은 절화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보통 허브가든에서는 '레이디스스팬'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용머리

Dracocephalum argenense
꿀풀과, ☀



키가 약 30~40cm 정도 자라고 5~6월경에 보라색 꽃이 만개한다. 우리의 토종식물로 우리환경에 아주 알맞게 생장이 좋은 피복용 소재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방충해가 없어 건조지 혼합식재용으로 매우 좋고 들메지움으로도 좋다. 보라색의 화려함은 축재장 등의 대관객 식재도 좋고 꽃이 많아 말원용으로 효과적이다.

플락카

Carex flacca
사초과, ☀



키가 20~30cm 정도로 자라며 카네이션 잎을 닮은 피란색 잎의 사초이다.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 어디에도 잘 적응한다. 포복에 의한 줄기 생장을 하지만 밀도가 아주 높게 천천히 퍼진다. 질감이 섬세해 지피식물로도 매우 좋다. 내건조성이 강하고 산성과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적응해 내염성도 강하다. 물 빠짐이 극히 불량한 지역의 건조에서는 길이 생장이 나쁘다.

봄을 알리는 최고의 아름다움
숙근초 화단, 잔디밭에 혼성식재하면 좋습니다.

추식구근



봄과 몇 년 전만 해도 튤립하면 에버랜드 튤립축제 또는 봄 화훼시장에서 작은 포트에 담겨져 형형색색으로 피어 있는 튤립을 쉽게 떠올렸다. 일반적으로 튤립을 비롯한 추식구근은 화려한 반면 화기가 짧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는 행사용 또는 분화용으로 대부분 유통이 되고 있었다. 실제로 튤립꽃이 지고

나면 볼품이 없기 때문에 캐내서 다시 다른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튤립을 비롯한 추식구근은 이른 봄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이 없는 이른 봄 숙근초화단에 잘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우리꽃은 2005년경부터 적극적으로 조경용으로 추식구근을 도입하였다. 즉 숙근초 화단에 혼성식재의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 구근으로 옆 식물과 섞이거나 경합하지 않으므로 봄꽃 최고의 혼성식재 소재로 활용가치가 높았던 것이다.

기존 화단의 숙근초 사이사이에 튤립, 수선, 무스카리 등 추식구근을 식재하면 4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아직 꽃이 없는 화단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추식구근이 잘 때쯤 바통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화단에 다양한 숙근초들이 봄부터 가

을까지 연속개화한다. 추식구근이 한해의 출발 선상의 첫 주자로 화려한 스타트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예전의 포천북식물원의 튤립축제처럼 기존의 잔디밭에 구멍을 뚫어 식재해도 아름다운 봄 경관을 감상하고 꽃이 지면 본연의 잔디광장으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개인정원의 잔디밭이나 골프장의 주요 보행로 주변의 잔디밭에 식재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는 추식구근이 조경용 소재로 많이 인식되어 골프장, 관공서, 식물원, 대학교 등 광범위하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추식구근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튤립의 경우 품종이 다양하여 색상별로 알맞게 디자인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수선화는 현장에 따라 꽃이 큰 품종과 작은 품종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하면 좋고 특히 수변 쪽에 적용하면 더욱 좋다. 크로커스는 4월 초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장점이 있고 무스카리는 보라색 포도송이 같은 꽃이 매우 달스럽게 피어 무리지어 심거나 라인식재해도 좋다. 특히 잔디밭 같은 경우에 튤립이 메인으로 식재된다면 그 테두리를 무스카리로 라인식재하면 좋다. 대형종을 원한다면 알리움기단티움이 있다. 절화용으로도 사용되는 이 품종은 구형의 꽃이 매우 커서 포인트식물로 제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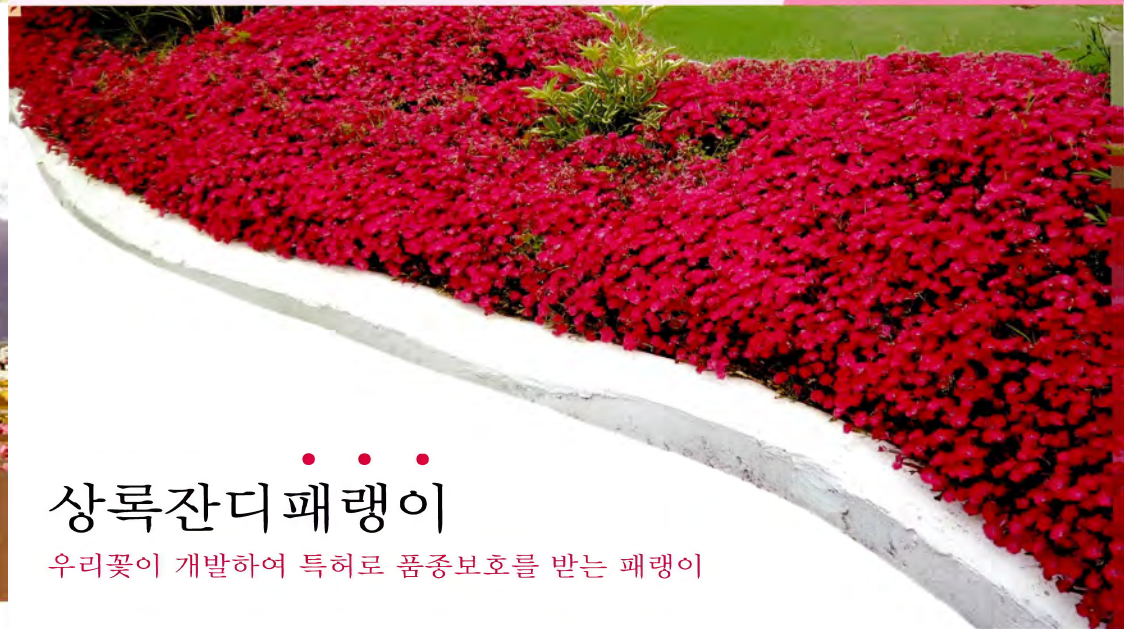
식재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사이에 식재하면 되고 길게 심어주는 것이 좋고 식재 후에는 충분히 관수를 해주어야 한다. 비로 지금 시기가 추식구근의 식재시기이다. 다양한 추식구근으로 내년 봄 아름다운 화단을 연출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해본다.

우리꽃은 창사 이래 조경용 묘종 및 증자 시장에 많은 신제품을 선보여왔다. 가우라, 숙근코스모스, 잔디패랭이, 우리법면혼합종, 눈썹은썰레 등등...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폭발적인 인기속에 현장에 적용되어졌고 지금도 꾸준히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며 지금까지도 조경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우리꽃 명품'들을 다시 재조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상록잔디패랭이

우리꽃이 개발하여 특허로 품종보호를 받는 패랭이



약 10년 전에 선보인 잔디패랭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되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누렸고 지금까지도 많이 이용하는 장수품목이다. 처음에는 우리꽃에서 보급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보편화되어 많은 농가에서 생산 보급하고 있다. 모든 제품이 그러하듯이 잔디패랭이도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존재한다. 패랭이 품종 중 품종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겨울 상록성을 유지하는 상록패랭이 계통이 존재한다. 잔디패랭이의 경우 장기개화하는 장점은 있지만 겨울상록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면을 감안하여 꽃도 장기개화되고 잎도 상록이면서 절감이 좋은, 즉 기능적, 경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패랭이 품종개발에 착수했다. 잔디패랭이와 왕상록패랭이를 교배하여 수년간 분리 육성하여 선발해낸 품종이 상록잔디패랭이다. 국립종자원에서 품종출원을 받아 품종보호를 받는 패랭이로도 유명해진 상록잔디패랭이는 출시 첫해부터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숙근지피식물의 새로운 소재로 각광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상록잔디패랭이는 꽃이 장기개화하고 화색이 진하고 잎의 절감이 좋은 특성이 있어 일반 화단에 군식하거나 혼합식재시 앞쪽 식물에 적용하면 좋고 특히 암석가든에 빠질 수 없는 필수품목으로 우리꽃의 대표작인 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상록잔디패랭이는 우리꽃의 품종등록 1호 품종으로 우리꽃만의 고유 품목으로 많이 인지되어지고 있고 식물에도 특허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에게 인식시킨 품종이기도 하다. 실제로 상록잔디패랭이는 허약 없이 무단으로 생산을 하면 법적으로 위배되어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모르고 일부 농가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식물품종보호권에 대한 홍보와 인지가 더 필요한 때이다.



기존 각종 코너에서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식물과 현상들이 소개되어 왔다. 이번 테마시리즈에서는 이들을 총망라하여 식물별, 현상별로 주제 즉 테마를 정하여 다양한 사진을 곁들여 독자들에게 안재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잎이 아름다운 식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물로 화단을 조성할 때 주류의 꽃의 화색, 화기, 형태 등을 감안하여 소재를 선정하고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꽃은 시기적으로 관상포인트의 한계가 있지만 잎은 3개월 내내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잎이 아름다운 식물들을 꽃과 잘 적용하면 훨씬 고급스러워지면서도 아름다움이 잘 유지되는 화단을 조성할 수가 있다.

잎이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잎의 색깔 또는 질감이 좋거나 형태가 아름다운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식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일 것이다.

또한, 아무리 잎이 아름다운 소재일지라도 맞는 환경에 적용하여야 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잎이 아름다운 호스타종이라도 음지쪽에 적용되어야 좋은 잎을 유지하게 되는데 양지쪽에 적용하면 여름에 잎이 타는 경우가 있어 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잎이 아름다운 대표적인 식물들을 선정하여 적용가능한 지역을 표기하고 현장 사진과 사진설명을 곁들여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소재를 고를 때 꽃뿐만 아니라 잎의 관점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호스타 음지, 수변

잎이 아름다운 대표적인 품목으로 잎에 무늬가 있는 종, 색깔이 좋은 종, 대형인 종 등 그 품종이 매우 다양하다. 음지 조경의 대표적인 수종이고 대표적인 수변식물이기도 하다. 큰 화분에 심어 디스플레이용으로 이용해도 좋다.



▲ 수목하부 음지에 잎이 대형이면서 색깔이 좋은 품종이 일식으로 잘 정돈되어 식재되어 있다.



▲ 풀이 있는 조경공간에 적엽휴캐라 등 잎이 좋은 식물들과 어우러져 식재되어 있는 모습

□ 알케밀라 양지, 반음지, 수변

스프레이 형태의 노란꽃과 더불어 둥그란 형태의 조밀한 잎이 아름다운 품목으로 화단의 앞라인 식재 또는 소화본 용으로도 좋다.



▲ 스프레이형의 노란꽃이 연두색의 잎과 조화를 이루며 게 단 양자로 일식되어 있다.



▲ 화단 앞 라인으로 일식되어 있으면서 꽃봉오리가 막 터지고 있는 경관

□ 아주가 음지, 수변

음지 피복용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적갈색의 잎이 매우 좋으며 잎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품종이 있어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



아주가 풀층중에서 잎이 크고 광택이 좋아 질감이 뛰어난 암아주가 종종대로 하부 화단에 군식되어 있다.



나무아래 환주리, 황금줄시철, 흰줄무늬 대사초와 단을 이루어 식재되어 있어 잎 색깔이 대비를 이루어 좋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 금강애기기린초 양지, 건조지

잎이 조밀하고 매트형태의 기린초로 암석가든, 옥상조경, 알라민식재 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골프장내 화단에 산색조판이 경계식물로 삼겨져 있고 수크림과 다른 세덤식물과 어울리며 화단 중앙에 매우 조밀하게 잘려 있는 금강애기기린초



암석가든에 풀 주변으로 점식되어 있다.

□ 무늬엔젤리카 반음지, 수변

잎의 하얀색 무늬가 좋아 매우 깨끗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식물로 일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뛰어난 품종이다.



데크주변으로 타식물과 함께 식재 되면서 무늬가 아름다워 주위를 밝게 해준다.

□ 코트너아스터 양지, 반음지

잎이 매우 조밀하고 광택이 있으며 붉은 열매는 겨울에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수목아래 하부식재, 풀메지풍, 석속취 식재, 암석가든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이다.



화단에 소관목으로 식재되어 조밀하게 무리지어 놓여져 있다.

□ 황금조팝 양지, 반음지

봄부터 가을까지 보여주는 황금색 잎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식물로 군식, 라인식재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은 품목이다.



식물원내 이동 동선 가장자리에 정갈하게 식재되어 있는 황금조팝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변 암석가든에 일정한 간격으로 포인트식물로 적용 되어져 있다.



골프장 코스내 홀과 홀 사이 이동동선 중에서 장관적으로 핵심이 되는 곳에 황금조팝으로 군식하여 황금색 물결을 이루고 있는 모습

□ 황금리시마키아 반음지, 수변

빠른 지피력 뿐만 아니라 황금색 잎이 매우 돋보이는 품목으로 약간의 습기가 있는 곳에서 더 잘 자라고 건조지에서는 생육이 좋지 않으므로 현장에 적용할 때 너무 건조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교동섬 중앙에는 아스타종과 가우라가 만개되어있고 외곽 가장자리에 황금리시마키아로 마무리한 경관



식생매트로 재배되고 있는 황금리시마키아



매우 조밀하고 빠른 지피력을 가지며 황금색잎이 돋보이는 모습

□ 클로버 양지, 반음지

클로버하면 잡초로 많이 인식되어 있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클로버는 잎에 적색이거나 무늬가 있어 잎 자체로 관상 가치가 있고 문양을 내거나 나무 아래 하부식재용으로 좋다.



사진 좌측부터 클로버 적엽, 클로버 트리칼라, 클로버 트리칼라, 잎의 무늬가 신랄해서 풍경을 적절히 이화하면 좋은 문양을 낼 수 있다.

□ 무늬꽃범의꼬리 양지, 수변

일반 꽃범의꼬리와 같은 형태를 띄지만 잎 가장자리에 하얀색 무늬가 좋아 잎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화단한편에 심어진 일찍이로 녹색전도를 배경으로 하얀색 무늬가 좋은 무늬꽃범의꼬리가 꽃대를 뽐내고 있는 모습

□ 적엽휴케라 양지, 수변

고급스런 잎이 꽃을 능가하는 품위가 있다. 분화용으로 많이 이용하지만, 색깔이 좋아 고급점원의 포인트 식물로 안정맞춤이다.



아직 꽃이 피기 이전 쉼날, 틈틈이 곳곳에 핀 화단 안에서 옥색의 광활한 잎이 매우 인상적이다.

침향(향)에 의해 향향소재로 디스플레이된 적엽휴케라, 적색의 색깔은 디스플레이용으로 최적의 소재로 이용된다.

□ 붉은애기괘의비름 양지, 건조지

몸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띄고 꽃도 6~7월에 붉은색으로 핀다. 암석가든의 풀 틈에 적용하면 좋고 옥상조경시 암석식물로 이용하면 매우 좋다.



붉은색의 아름다운 잎이 돌을 감싸고 있다. 암석가든에 여러종류의 새싹들과 어울려 식재하여 색깔의 대비를 이룬다.

□ 삼색조팝 양지, 반음지

아름다운 잎과 꽃이 잘 어울리는 조팝으로 공원, 도로변, 골프장 등에 회양목이나 철쭉대풍으로 활용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화단 곳곳에 식재되어서 있는 삼색조팝의 붉은색 분이 화단전체를 밝게 해주고 있다.

암석가든의 풀 주변에 꽃잔디와 조화롭게 식재되어 있는 모습

□ 무늬병꽃 양지, 반음지

안동과의 낙엽 활엽관목으로 땅에서부터 많은 줄기가 나와 큰 포기를 이루며 꽃은 모양이 병과 같아 이색적이다. 잎의 가장자리에 황금색 무늬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 관상가치가 뛰어난 수종이다. 공원, 아파트단지 내 등 녹지대 등에 무리지어 군식하면 좋다.



꽃줄기에 보라색 꽃이 찬찬인 옆으로 황금색잎이 아름다운 무늬병꽃나무가 비스듬히 서 있다.

□ 패랭이 핑크 양지, 건조지

잎이 짙고 조밀하며 전체적으로 초형이 땅에 밀착한 형태의 패랭이 품종으로 잎의 질감이 뛰어나며 건조에 강하고 암석가든, 옥상조경용으로 좋다.



황금색 줄기할 골짜리 근처에 있어 있는 패랭이 핑크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 줄사철 양지, 음지

줄사철은 상록관목성으로 양지는 물론 음지 또는 벽면부착용, 지피식물로 많이 이용되는 소재이다. 다양한 잎 색과 무늬가 있는 품종이 많아 양, 음지에 지피식물로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황금색 줄기할 골짜리 근처에 있어 있는 줄사철은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 실은숙 양지

이슬처럼 아름다운 잎을 가지고 있으며 은색의 칼라는 어떤 정원에도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암석가든에 적용하거나 라인식물로 활용 가치가 높다.



보송보송한 부드러운 은색의 잎이 다른 식물들 속에서 포인트로 식재되어 있다.

□ 무늬큰고랭이 양지, 수중

물속의 대표적인 대형의 수중식물로 잎의 무늬와 선이 아름답다. 고식하거나 데크를 따라 물속에 열식을 해도 효과적이다.



소문못 가장자리 물속에서 아름다운 무늬가 눈부신 광경을 내뿜으며 자리를 잡고 있다.

□ 적엽좁쌀풀 양지, 수변

어린 새싹부터 다 자랄 때까지 잎에서부터 줄기까지 붉은색을 띄고 수변에 적용 가능한 식물로 수변의 포인트식물로 적용이 가능하다.



삼색조팝, 분홍조팝이 반길아 식재되어 있는 말린으로 적엽좁쌀풀이 붉은 색깔을 내뿜으며 라인식재 되어 있다.

생육이 강건하여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반식적도 잘라 잡초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하다.

□ 눈향 양지, 반음지

건조지에서도 생육이 강하며 추운 겨울에 단풍이 들지만 상록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피력이 뛰어나고 특히 블루톤의 잎은 색깔이 좋아 경관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준다.



블루톤의 질감이 좋은 잎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땅을 가리며 노지에서 재배되어 지고 있다.

삼색의 잎을 유지하며 겨울 내내 추위를 이겨내고 봄을 맞이한 푸른 눈향은 눈향속을 들고 활력이 피어났다.

□ 무늬꽃창포 양지, 수변

수변 및 일반지에서도 생육이 좋고 무늬가 좋아 길옆의 라인식재 및 자연형 계류의 돌출, 연못의 수변에 적용하면 좋다. 또한, 잎의 무늬, 식물체의 형태가 좋아 혼합식재시 포인트 식재를 해도 효과가 뛰어나다.



잎의 무늬가 아름다워 수변뿐만 아니라 일반 화단에 적용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로 수변에 식재 가능하지만 50cm 미만의 낮은 물 속에 잠겨도 생육이 가능하다. 잎은 물 속에 잠겨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

□ 실유카 브라이트에쨌 양지, 반음지

고급스런 포인트식물로 잎의 바깥쪽으로 무늬가 있다. 겨울상록성으로 잎의 질감이 뛰어나며 돌베지용으로 적용해도 좋다.



현장에 적용시 쓰러짐이 없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화분배하는 모습

□ 그라스류

그라스류는 어떤 다른 품종보다도 잎이 아름다운 품종군이다.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그 어떤 꽃보다도 효율적으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잎 색깔의 범위는 녹색에서 청색, 노란색, 청동색, 붉은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잎의 질감 또한 김의털처럼 아주 얇고 고운 질감부터 큰 억새의 거친 느낌까지 다양한 질감을 준다. 잎이 아름다운 그라스류의 현장적용은 고급 조경을 가능하게 해준다.

노란색



줄사철 골드라이트 무늬여우꼬리그라스 하코네클로아

적색/갈색



홍디 갈사초 햇살

흰색



갈골페세이 무늬여우꼬리그라스 무늬골리세리아

녹색



물리니야무어 비틀즈 좁새풀

파란색



새 블루마운틴 옥색파랑새 옥색파랑새 파니클메비탈

기타



아이스댄스 옥색리틀베브라 흰줄무늬대사초

2011 일본 화훼 신제품 및 원예 자재 품평회

(Flower Trail & Garden Trial in Japan 2011)

마케팅팀_류정안

우리꽃은 다양한 품종 보급 및 개발을 통해 국내 화훼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소개하고자 이번 2011 일본 나가노 지역에서 개최된 '플라워 트라이얼 & 가든 트라이얼'을 다녀왔다.

이번 기간 동안 일본 화훼로열티 전문관리회사 '플랜트네트웍' 마츠이 대표와 동행하였으며 다양한 업체들과의 미팅을 통해 우리꽃의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하였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계약의사를 이끌어냈다.

일종의 화훼 및 원예자재 품평회로 2008년까지 종자나 묘종 전문업체가 각자의 농장 및 생산시설을 개방하여 개별적으로 전시, 홍보하였던 소규모 개인 품평회가 점차 확대되어 2009년부터 '플라워 트라이얼 인 제팬'이라는 명칭으로 지역적인 규모의 행사로 발전하였고 작년(2010년)부터 원예자재 중심의 '가든 트라이얼'까지 추가되면서 '플라워 트라이얼 & 가든 트라이얼 인 제팬'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까지 소매상, 유통 관계자, 생산자 등 원예업체 관계자 1000명 이상이 참가하였으며 급변에도 나가노와 야마나시 양쪽 현에 걸쳐서 야츠가다케 인근에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원예전문업체인 타키종교, 산토리플라워즈, 하쿠산, 카네코종묘, 미요시, 수미가 등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내년 봄에 출시될 묘종, 종자, 원예자재 등 2012년 봄 일본 원예시장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일본의 화훼시장(연간 대략 4조 5천억 원 규모)은 점차 침체하고 내수열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선과 공간을 중시하던 과거 전통적인 동양 스타일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누구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원형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의 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우리꽃변화수' 제품처럼 미면변화와 옥상녹화를 시



도하는 회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녹색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번 품평회를 둘러보며 단순 화훼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또는 친구끼리 개인차를 이용하여 10여 개의 회장에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구성하며 사진 찍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일본에서의 화훼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문화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화훼시장은 일본시장에 비해 규모나 다양성에서 훨씬 작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경제적인 수준이나 정책적인 지원의 부재가 주된 이유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꽃을 문화적으로 즐기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것 같다. 생산자 또한 획일적인 품종과 규격의 완성품보다는 개인 취향에 맞춰 화단이나 베란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과 형태의 제품들을 생산해 낸다면 더욱 더 풍성하고 여유로운 화훼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꽃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이미 호평받고 있는 우리드림시리즈와 상록잔디패랭이시리즈 외에도 다양한 신제품 보급에 주력할 것이며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화훼로열티 확보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지금은 매출액과 비교해 볼 때 시작단계의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본과 유럽을 시작으로 북미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우리꽃의 신제품이 화훼전진국 농가에서 활발하게 판매되어 진정한 우리드림이 실현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나가토모사와 미팅



▼도시원예제품에서 수확한 재료로 활용한 꽃작품



▲일본화훼시장에서의 우리드림시리즈



한국대표 혼합종이 식생거적으로 거듭납니다!

SM serise

SM(seed mix)시리즈는 종자와 종이배지, 황마네트, PE네트로 이루어지며 경사도, 일조량 등의 현장상황에 따라 네트 및 종자의 구성을 달리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시공하는 모습



시공 직후

당사의 식생거적은 저렴하면서도 식물발아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다층구조로 구성되며 수년간의 실적으로 입증된 우리법변혼합종자(3호, 4호)의 적용으로 법면 및 나지의 생태복원을 약속드립니다.

SM 시리즈

- ▶ SM1- 우리의 향토종자와 관목을 적용한 산림복원용
- ▶ SM2- 우리의 야생화와 생태하천에 적용가능한 관목류를 혼합한 생태하천용
- ▶ SM3- 우리의 야생화 중심으로 26종을 혼합,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경관 연출
- ▶ SM4- 화려함을 강조한 혼합종으로 화려함과 생명력, 비관리의 대표적인 혼합종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변화수(주))

구입문의 031)712-7001,7119



SM 식생거적



아래글은 미국 GPN잡지에서 발췌한 기사글입니다. GPN은 Greenhouse Product News의 약자로 월간으로 발행되는 미국 원예전문잡지로 원예산업의 기술과 동향에 대한 내용을 신발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잡지입니다. 저자인 스텔포머는 매년 화훼업계에 대하여 다양한 원예정보지에 기고하고 있으며, 포터컴퍼니그룹의 CEO이다. 화훼홍보협회에서 상무직을 맡고 있다. -편집자주-

소비와 가치창출

어떻게 하면 화훼농가들과 소매상들은 그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 좋은 물건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잘 설득시키고, 궁극적으로 그 상품 이상의 것들까지 구매하게 만들 수 있을까? -Stan Pohmer

화훼농가들이 화분을 기르고, 소매상들은 상품으로 화분을 팔아왔다. 상품을

창조해내고 소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젊거나 나이 들거나 모든 인구 세대들이 식물과 꽃이 모든 소비자들의 삶과 라이프스타일과 관련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광고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자, 중요성을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소매상들이 할 일이 아니다. 물론 대부분 농장보다 고객과 가까이 지내지만 말이다. 농가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다음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민간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지는 식물과 화훼가 제공하는 혜택과 "삶의 질"에의 공헌도는 고객의 메시지로 큰 광고가 된다. 농가에서 이용하는 화분의 라벨이나 보드판에 적어놓는 메시지들을 이용한다. 소매상들은 농가가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커져 있는 고정관념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항상 농가들이 제공해왔고 소매상들이 이해해오던 그 루트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2. 시민조직, 민간조직 등(America in Bloom/AIB)을 이용하자. 읍면동, 시 등지에서 식물과 화훼를 소비하여 지역의 청결을 고무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지역민이나 지도자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가치 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단체와 개인 수준에서 모두 이해되도록 하는 이런 움직임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참여한다.

3. 어린이들은 미래의 고객이다. 농가시설로 학교에서 방문하게 한다면 학교의 과하시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물과 화훼의 가치를 일찍 깨닫도록 한다면 더 빨리 고객이 될 것이다.

4. 지금 시작해라. 누가 당신을 위해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는 좋은 상품들이 있다. 단지 낮은 가격이라는 이유 말고 말이다.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혜택과 중요성을 고객과, 우리 화훼산업을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알아야만 한다.



시장에 창출해내는 것이 소매상들의 할 일이고 책임이었으며, 오랫동안 이 공식은 잘 지켜졌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화훼산업 성장률은 급속히 느려졌다. 그동안 화훼산업을 일으켰던 고객층, 주 고객층들은 점점 화훼 상품 소비가 줄어가고, 새로운 소비층이 등장하는 것을 외면해왔다.

모든 인구계층의 소비자에게 식물과 꽃이 삶과 라이프스타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시키고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진짜 상품의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화훼가 제공하고 있는 진정한 개인적 혜택-감성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을 부각시키지 못한 것이다. 개인이 주택과 건물의 가치에 경제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달라진 소비자들

요즘 소비자들은 20년 전, 10년 전이나 5년 전 소비자들과 아주 다르다. 우리가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디지털 매체로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신문과 잡지의 파워는 줄어들고 있으며, TV, 케이블에서는 "친화성"이 높은 방송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구매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그전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인터넷 앞에서 지갑을 열고 있다.

끊임없이 요즘 소비자들은 그 어떤 때보다 매우 가치의식적(value conscious)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라는 것을 "낮은 가격"이라고 동일시하기 쉽다. 최근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가치를 보는 관점은 그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나에게 주는 이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격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여러 인자 중 한 가지이고, 만약 어떤 상품에서 진정한 개인적 가치를 발견한다면 가격은 고려 요소 순위에서 밀려난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이 화훼 산업에 제안하는 상품의 중요성을



우리꽃 삼자단가 계약 품목 리스트

우리꽃에서는 보다 쉽고 빠르게 신뢰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조달청과 삼자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아래와 같은 품목이 삼자단가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속하여 우리꽃의 다양한 품종을 조달청과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하여 노력하는 우리꽃이 되겠습니다.

NO	G2B분류번호	품명	규격	삼자단가(원)	NO	G2B분류번호	품명	규격	삼자단가(원)
1	22206873	금강애기나리초	390×390×50mm	53,000	81	22206739	애기노랑금계국	8cm포트	1,900
2	22206874	금강애기나리초	390×390×50mm	40,000	82	22206740	애기나리주	8cm포트	1,200
3	22206875	꽃잔디레드킹	390×390×50mm	53,000	83	22206741	악새	8cm포트	280
4	22206876	꽃잔디레드킹	390×390×50mm	40,000	84	22206742	악새크리타이트	10.2cm포트	5,600
5	22206877	꽃잔디와이드중혼	390×390×50mm	53,000	85	22206743	악새모노리이트	10.2cm포트	5,600
6	22206878	꽃잔디와이드중혼	390×390×50mm	40,000	86	22206744	악새파랑새	10.2cm포트	5,600
7	22206879	노랑숙근코스모스	390×390×50mm	53,000	87	22206745	악새파랑새	20cm포트	8,000
8	22206880	노랑숙근코스모스	390×390×50mm	40,000	88	22206746	악새홍피	10.2cm포트	5,000
9	22206881	대사초	390×390×50mm	53,000	89	22206747	악새홍피	10.2cm포트	3,600
10	22206882	대사초	390×390×50mm	40,000	90	22206748	악새나	8cm포트	1,200
11	22206883	맥문동	390×390×50mm	53,000	91	22206749	악새나노우	8cm포트	1,400
12	22206884	맥문동	390×390×50mm	40,000	92	22206750	오렌지숙근코스모스	8cm포트	1,700
13	22206885	맥지카펫외7중혼	390×390×50mm	53,000	93	22206751	옥잠	2-3분얼	1,200
14	22206886	맥지카펫외7중혼	390×390×50mm	40,000	94	22206752	옥잠골든티아라	2-3분얼	2,800
15	22206887	삼목잔디파랑이	390×390×50mm	53,000	95	22206753	옥잠레데스	2-3분얼	2,800
16	22206888	삼목잔디파랑이	390×390×50mm	40,000	96	22206754	옥잠블루문	2-3분얼	2,400
17	22206878	가우라	8cm포트	600	97	22206755	옥잠	20cm포트	8,000
18	22206879	가우라베아비	8cm포트	1,600	98	22206756	왕상록배롱이참이슬	8cm포트	900
19	22206880	간국	8cm포트	350	99	22206757	왕아주기	8cm포트	1,600
20	22206881	원추리/개량종	2-3분얼	3,000	100	22206758	왕상모나디립크	8cm포트	1,700
21	22206882	원추리/개량종	20cm포트	8,000	101	22206759	유기브라이트에어	2-3분얼	12,000
22	22206883	거북머리	8cm포트	2,000	102	22206760	적엽클로버	8cm포트	1,400
23	22206884	곰돌이	10.2cm포트	2,700	103	22206761	제비꽃	8cm포트	700
24	22206885	구절초	8cm포트	400	104	22206762	좁새	8cm포트	1,400
25	22206886	금강애기나리초	8cm포트	1,200	105	22206763	초롱꽃에델바이스	8cm포트	1,200
26	22206887	금강애기나리초	20cm포트	8,000	106	22206763	초롱꽃에델바이스	8cm포트	1,700
27	22206888	금계국	8cm포트	280	107	22206764	초롱꽃레드벨	8cm포트	1,200
28	22206889	고리꽃물루	8cm포트	1,700	108	22206765	카펫수영일부	8cm포트	1,200
29	22206890	고리꽃물루	8cm포트	1,700	109	22206766	큰왕의비름잔주	8cm포트	1,700
30	22206891	꽃백합	8cm포트	1,700	110	22206767	큰왕의비름잔주	20cm포트	8,000
31	22206892	꽃잔디레드아이	8cm포트	900	111	22206768	클레아티스에스코트	17cm포트	6,400
32	22206893	꽃잔디레드킹	8cm포트	1,100	112	22206769	털수염꽃	8cm포트	2,500
33	22206894	꽃잔디레드아이	8cm포트	1,100	113	22206770	털수염꽃	8cm포트	1,400
34	22206895	꽃잔디레드아이	8cm포트	350	114	22206771	털수염꽃	8cm포트	1,600
35	22206896	노랑숙근코스모스	8cm포트	1,700	115	22206772	파나콤	8cm포트	2,400
36	22206897	노랑숙근코스모스	8cm포트	1,700	116	22206773	플라워	8cm포트	3,000
37	22206898	노랑숙근코스모스	8cm포트	1,700	117	22206774	하늘을달	8cm포트	1,700
38	22206899	노랑숙근코스모스	8cm포트	1,900	118	22206775	홀리	8cm포트	1,600
39	22206900	노랑숙근코스모스	8cm포트	2,000	119	22206776	후룩스매	8cm포트	1,600
40	22206901	대사초	8cm포트	2,000	120	22206777	후룩스매	8cm포트	1,700
41	22206902	대사초	8cm포트	350	121	22206778	후룩스매	8cm포트	1,600
42	22206903	대사초	8cm포트	1,400	122	22206779	후룩스매	8cm포트	1,600
43	22206904	대사초	8cm포트	1,400	123	22206780	후룩스매	20cm포트	8,000
44	22206905	대사초	8cm포트	1,700	124	22206781	한꽃세	8cm포트	500
45	22206906	대사초	8cm포트	1,000	125	22206782	한꽃세	8cm포트	1,200
46	22206907	대사초	8cm포트	2,500	126	22206783	한꽃세	8cm포트	1,600
47	22206908	대사초	8cm포트	3,600	127	22206784	한꽃세	10.2cm포트	3,000
48	22206909	대사초	8cm포트	2,000	128	22206785	한꽃세	430×430×80mm	30,000
49	22206910	대사초	8cm포트	2,800	129	22206786	한꽃세	280×340×50mm	10,000
50	22206911	대사초	10.2cm포트	4,000	130	22206787	한꽃세	280×340×50mm	10,000
51	22206912	대사초	20cm포트	8,000	131	22206788	한꽃세	280×340×50mm	10,000
52	22206913	대사초	8cm포트	1,900	132	22206789	한꽃세	280×340×50mm	10,000
53	22206914	대사초	8cm포트	1,700	133	22206790	한꽃세	280×340×50mm	10,000
54	22206915	대사초	8cm포트	1,700	134	22206791	한꽃세	280×340×50mm	10,000
55	22206916	대사초	10.2cm포트	800	135	22206792	한꽃세	280×340×50mm	10,000
56	22206917	대사초	8cm포트	1,600	136	22206793	한꽃세	280×340×50mm	10,000
57	22206918	대사초	8cm포트	400	137	22206794	한꽃세	280×340×50mm	10,000
58	22206919	대사초	8cm포트	400	138	22206795	한꽃세	280×340×50mm	10,000
59	22206920	대사초	8cm포트	280	139	22206796	한꽃세	280×340×50mm	10,000
60	22206921	대사초	8cm포트	1,400	140	22206797	한꽃세	280×340×50mm	10,000
61	22206922	대사초	8cm포트	1,700	141	22206798	한꽃세	280×340×50mm	10,000
62	22206923	대사초	8cm포트	1,400	142	22206799	한꽃세	280×340×50mm	10,000
63	22206924	대사초	8cm포트	900	143	22206800	한꽃세	280×340×50mm	10,000
64	22206925	대사초	10.2cm포트	700	144	22206801	한꽃세	280×340×50mm	10,000
65	22206926	대사초	8cm포트	1,900	145	22206802	한꽃세	280×340×50mm	10,000
66	22206927	대사초	8cm포트	1,700	146	22206803	한꽃세	280×340×50mm	10,000
67	22206928	대사초	8cm포트	2,400	147	22206804	한꽃세	280×340×50mm	10,000
68	22206929	대사초	8cm포트	2,400	148	22206805	한꽃세	280×340×50mm	10,000
69	22206930	대사초	8cm포트	280	149	22206806	한꽃세	280×340×50mm	10,000
70	22206931	대사초	10.2cm포트	800	150	22206807	한꽃세	280×340×50mm	10,000
71	22206932	대사초	8cm포트	1,100	151	22206808	한꽃세	280×340×50mm	10,000
72	22206933	대사초	8cm포트	1,100	152	22206809	한꽃세	280×340×50mm	10,000
73	22206934	대사초	8cm포트	1,900	153	22206810	한꽃세	280×340×50mm	10,000
74	22206935	대사초	8cm포트	1,400	154	22206811	한꽃세	280×340×50mm	10,000
75	22206936	대사초	2-3분얼	1,900	155	22206812	한꽃세	280×340×50mm	10,000
76	22206937	대사초	8cm포트	1,200	156	22206813	한꽃세	280×340×50mm	10,000
77	22206938	대사초	8cm포트	1,200	157	22206814	한꽃세	280×340×50mm	10,000
78	22206939	대사초	20cm포트	8,000	158	22206815	한꽃세	280×340×50mm	10,000
79	22206940	대사초	10.2cm포트	2,000	159	22206816	한꽃세	280×340×50mm	10,000
80	22206941	대사초	8cm포트	1,200					

16

식물의 "잎"

잎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어 내는 기관이다. 기공을 통해 물을 증발시키는 증산작용이 일어나며, 다양한 서식지에서 식물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모양과 크기와 형태가 수없이 다양하다.

구조와 기능

잎의 기본적인 요소는 엽신(lamina)이다. 단입은 꼭 이어진 하나의 잎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반면에 겹잎은 분리된 작은 잎몸로 나누어져 있다. 대부분의 잎몸은 가느다란 잎자루(엽축)를 통해 줄기에 붙어 있다. 그러나 많은 외떡잎식물들이 그렇지, 잎자루가 없는 식물도 있다. 양치식물의 잎(fronds)은 보통 셀 수 없이 갈라져 있으며, 자리면서 말려 있던 잎들이 퍼진다. 번식할 수 있는 포자는 보통 식물의 밑면에 형성된다. 몇몇 꽃이 피는 식물은 덩굴식물의 덩굴 손처럼 잎을 변형시켜 왔다.

잎맥은 식량과 줄기 판다발 조직의 연장선이다. 쌍떡잎식물의 잎에는 보통 하나의 주맥과 이로부터 뻗어 나가는 보조

적인 잎맥들이 있다. 외떡잎식물의 경우, 잎맥이 일과 나란히 이어져 있으며 딱히 주맥이라 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무와 관목에 있어 가장 확연히 구분되는

잎의 분류는 낙엽수인지 혹은 상록수인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상록수의 일 년 내내 지속적으로 잎을 떨어뜨리고 새잎으로 대신한다. 반면에 낙엽성의 식물은 매년 잎을 교체하는데, 겨울에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잎을 가을에 떨어뜨린다. 잎의 주요 기능은 광합성과 증산이다. 광합성은 엽록소(대부분의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도록 하는 색소)에, 증산은 잎 표면에 있는 기공(미세한 구멍들)에 크게 의존한다.



침엽수 잎

대부분의 침엽수는 바늘과 같은 직선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으며 말랑말랑한 재질의 두꺼운 외층으로 덮여 있다. 이러한 특징은 수분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겨울에 뿌리가 땅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할 때 특히 유용하다. 잎은 대개 하나씩 배열되거나, 쌍을 이루어 줄기 양쪽으로 뻗는 형태(태 모양), 혹은 나선의 형태로 보인다.

빗 모양 ▶
(pectinate)



바늘 모양(acicular) ▶
비늘모양(scaled) ▼



색과 질감

낙엽성의 식물에서 잎이 노화됨에 따라, 잎의 질감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잎의 색깔도 변하기 시작한다. 이는 색소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엽록소의 소실이 주요한 원인이다. 무늬 잎(variegated leaves)의 경우 형태상의 변형 때문에 색소가 고르지 않게 분산되어 있다.



잎의 배열

여러 환경에서 태양광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식물의 잎은 다양한 방법으로 배열되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잎의 배치가 빛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속 또는 과에 속하는 구상들은 흔히 잎의 배열이 비슷하다.

여러한 종에서는, 각각의 잎마다 잎들이 뻗음이 일직선(줄기와 함께) 장미 또는 나선 모양을 형성한다. 다른 종에서는 잎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짝을 이루어 피어나서, 줄기에 일정한 간격(care stem : internode)을 두고 정반대로 나쁜 형태, 교대로 나쁜 형태, 또는 잎을 겹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어떤 잎들은 줄기를 주변에 나선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생
잎이 쌍을 이루 같은
지점에 반대방향으로
배치된다.



관생
줄기를 감싼 잎이 개별
혹은 쌍으로 배치된다.



로제트
잎이 줄기의 한 지점 또는
식물의 하단부로부터 발산
하여 뻗음이 밀집하여 배
치된다.



관생
혹은 그 이상의 잎들
이 함께 줄기를 주변에
배치된다.



2열
2개의 납작한 잎이 줄기
의 반대 면에 배치(대생)
된다.



4열
잎들이 짝을 이루어 직각
으로 교차하여 배치(호생)
된다.